

'해남 바나나' 맛볼 날 멀지 않았다



해남군이 이열대 작물 실증실험을 통해 바나나 재배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는 ICT첨단하우스 500㎡에 삼척, 송기밥, 봉기, 레드 등 품종별 바나나 80여주를 정식, 올해 6월부터 수확을 시작했다.

바나나는 정식 후 1년생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생육이 좋을 경우 보통 2년에 3회 정도 수확한다. 국내산 바나나는 나무에서 충분히 성숙한 뒤 따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고온이나 농약으로 살균처리하

해남군농업기술센터, 품종별 바나나 80여주 정식 지난 6월부터 수확...맛과 향 뛰어나 선호도 높아

는 검역과정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제주도 등지에서 재배를 재개, 점차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산 바나나는 kg당 3000~4000원선이며, 국내산은 6500~7000원선에 소매가가 형성되고 있다. 재배시 겨울철 병해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15~18℃ 정도의 가온이 필요하고 5m이상 높이의 하우스를 시설해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증시험 중인 바나나는 지난해

봄 정식 생육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군은 품종별 수량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 후 해남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남군은 온난화에 대응해 실증시험포를 운영, 애플망고, 바나나, 용과, 커피, 체리류, 올리브 등 다양한 이열대 작물의 지역적응성 실증시험 중으로 단계적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남해안의 온난한 겨울을 감안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새로운 이열대 작물을 지속적으로 도입 검토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영암 대봉감 고품질 가공품 생산기술 보급 가공농가 200여명 대상 과잉생산 대비 기술교육

영암군은 지난 23일 영암군 지역 소규모 대봉감 가공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대봉감 가공 및 저온저장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임업진흥원과 영암군의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영암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대봉감이 작년과 비교해 10~20% 정도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가공기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농가들은 "그동안 가공품 생산의 필요성은 평소 느껴왔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차, 이번 교육을 통해 폭넓은 가공

품 제작기술을 배우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가공품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데 앞장서야겠다"며 입을 모았다. 영암군은 이와 같이 국내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게 생과 위주의 유통·판매에서 벗어나 꽃감, 밀랭이, 아이스홍시 및 감스무디 등 다양한 고품질 가공품 개발·생산을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의 대봉감 주산지답게 영암 대봉감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암=김원훈 기자

목포 신중양시장, 청년점포로 활력 충전

전남형 푸른돌 상인 추진...이달 중 10개소 오픈 목표 진행

목포 신중양시장에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점포 10개소가 조성 중이다. 전라남도 목포시, 전남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 전통 시장 유통점포를 활용해 점포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청년상인 교육훈련생을 모집해 교육훈련(60시간), 창업부여(1박 2일), 멘토링(10시간)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지난 8월 청년창업자

10명을 선정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집기류 설치 등이 마무리 중이며 10월 말 문을 열기 위해 청년들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청년점포 조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일 신중양시장 주차장에서 시식코너 운영 등 품평회를 개최해 음식과 서비스 등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품평회가 야외에서 열려 청년들은 음식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시민들은 독특한 아이디어



로 준비한 창업아이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청년상인들의 도전에 많은 격려와 용기를 보였다. 박홍을 시장은 "신중양시장 청년점포 창업이 청년의 창업 기회

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길 기대한다. 시의 의지와 청년의 참신함과 열정이 만나 좋은 결실을 맺는 대표적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가소득 창출 기여할 '벼 채종단지' 최종 선정

특등보다 20% 높은 가격 수매...농가당 1천만원 추가 소득

강진군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실시한 2018년 벼 보급종 채종단지 심사결과 작천면 내동단지(가)가 채종단지, 작천면 죽현단지가 예비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11일 평가위원들은 강진군을 방문해 벼 보급종 채종단지 후보

지역평가항목에 따라 포장 적합성 및 확대 가능성, 포장관리의 효율성 및 채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작천면 내거리 내동단지가 90.3점을 받아 2018년 벼 보급종 채종단지로 최종 선정됐고, 작천면 현산리 죽현단지가 예비단지

로 선정됐다. 벼 보급종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벼는 10a당 500~530kg을 종자원과 수매·계약한다. 수매가격은 공공비축미 특등 매입가격에 생산장려금 20%를 더 받게 돼 단지당(30ha 기준) 1억원 이상의 추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10농가에서 단지 운영시 농가당 1천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창출되게 된다.

지난해 5월 국립 종자원과 강진군 한들농협이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정서 교환식을 가진 후 나타난 성과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채종단지 추가 선정은 국립종자원의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유치로 나타난 성과다. 향후 작천면 단지를 발판으로 군동면과 성전면 등 인접 지역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치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곡성군, 열번째 토닥토닥 걷기행사 개최

두더위에 배개를 땀으로 적시며 집을 살린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새 잠자리 이불이 두터워졌다. 하늘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산과 들에는 울긋불긋 곱게 수놓은 단풍이 절정이다. 아침마다 피어오르는 안개는 익숙한 사물에 새로운 감각을 더해 준다. 바야흐로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가을을 맞아 곡성군의 열 번째 토닥토닥 걷기행사가 이달 28일(토) 9시에 개최된다. 삼기면 노동마을에서 울곡마을까지 인도를 걷는 가을여행길로 진행되는 이번 여행길의 주제는 '달이 굽이 임도를 여행하다'이다. 노동1구 마을은 곡성군에서 제일 높은 통명산(764m) 자락에 위치해 있다. 토닥토닥 걸다보면 어느덧 화트인 시야가 걸음을 멈추게 한다. 삼기면의 넓은 들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옥곡면 소재지가 한눈에 들어와,

보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4km가량을 굽이굽이 돌아내려오면 군데군데 담쟁이가 동지를 틀고 있는 예쁜 돌담이 굽반구 마을 안길에 다다랐음을 알려준다. 동네 주민과 인사도 나누고 수확 중인 금들밭을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2시간 남짓 짧은 여행의 종착지인 노동1구 마을에 도착해서 이슬처럼 맺힌 땀을 닦고, 가져온 도시락도 함께 나누면서 이웃과도 서로 소통하는 꽃밭 같은 시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열 번째를 맞고 있는 토닥토닥 걷기는 곡성 구석구석 숨어 있는 길을 찾아 여행하고 함께 소통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으며, 건강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김광희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